

출애굽기 5 장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서다

1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2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6 바로는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9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21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 셈이오." 22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 곳에 보내셨습니까?"

- 5 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주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많았는데 그런 신들 중에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기에 신으로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3 절에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는 8 장 26 절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을 치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일들의 책임이 바로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 5 절부터 19 절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한 까닭에 히브리 백성들의 작업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의 불평이 모세와 아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0-21 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구해 내시는 방법이 백성들의 기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2 절과 23 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모세조차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모두 아주 신속하면서도 순조로운 사건 전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의 기대는, 고난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 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2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3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4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5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7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인데, 고핫은 백삼십삼 년을 살았다. 20 아르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르람은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 2-3 절의 내용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졌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알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면모를, 출애굽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특성들을 기억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 절의 '여호와' 에 달려있는 각주를 참조해 주세요.
- 6-8 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많이 내포됩니다. 특별히 7 절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 5 절에서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셨다가 다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을 실천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10-13 절의 내용과 26-30 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족보의 앞뒤로 반복이 되면서 족보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14-25 절에서 야곱의 첫 세 아들을 보여주는 족보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레위에서 멈춥니다. 이것은 촛점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데 23 절과 25 절의 내용이 그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고라 자손은 (24 절) 나중에 모세를 시기하여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멸망 당하는 가문입니다 (민수기 16 장).
- 26 절은 출애굽이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문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